

동물원(動物園)의 역사



김 정 수

대한수의사회 수의역사 특별위원
(전 서울대공원 수의사)

동물원의 기원

시초의 동물원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세계에서 드넓은 지구촌을 상대로 모든 동물과 인간은 한 덩어리가 되어 발전해 왔다. 먹이사슬에 따라 먹고 먹히기도 하는 자연의 섭리에서 우리 인간은 점차로 그들 야생동물을 이겨내는 지혜로움을 창출해 내고 고차원적인 사회적 조직력으로 100만종이나 되는 동물 중에서 패자(覇者)의 자리를 고수하게 된 것이 곧 우리 인간이다.

언제부터인가 그중 순한 동물을 사로잡아가 가까이서 먹을 것을 던져주고 그 동물이 먹이를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보면서 멀리 달아나지 못하게 가두어 놓고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하노라면 하루하루가 어찌나 재미있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로웠을 것이다.

몇몇 종류의 동물들은 사료를 먹는 가운데 서서히 순치(馴致)되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을 더 달라고 더욱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간과 동물사이에 조그마한 신뢰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시 인류는 동물 사육의 획기적인 방법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농경 사회로의 전환이 되고 난 후부터 오늘날의 축산처럼 산업화 하기까지는 유구한 세월이 흘렀던 것이다.

인류는 농경화 되면서부터 소, 말, 양, 돼지, 닭, 개 등이 가축화 되면서 부터는 위험부담이 큰 야생동물 사냥을 절제 또는 중지하게 되었다. 인간이 물질적 이익 목적을 떠나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수렵과 유목생활로부터 농경 정착

시대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부(富)를 이루게 되었고 야생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하기 시작 한 것이다.

특히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지배계층에서부터 먼저 동물을 수집하고 사육하면서 관찰하고 즐기면서 부와 권위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야생동물의 수집과 사육에 대하여는 B.C. 1100년경에 중국의 주(周)나라를 비롯하여 이집트, 인도 등지에 귀족들에 의한 사육사례에 대한 기록이 있고 유럽에서는 솔로몬 왕(B.C. 974-937)때의 동물사육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며, 그중 중국의 주(周)나라에서는 주무왕(周武王)이 궁정(宮庭)안에 호랑이, 사슴, 코뿔소 등 대형동물과 새들(鳥類), 왕뱀과 거북등 파충류(爬蟲類), 물고기(魚類)등을 사육하면서 이곳을 지식원(知識園)이라 이름지었다. 지식원이란 단순하게 왕을 비록한 일부계층의 흥미나 위락(慰樂)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동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지식을 보급한다는 관점에서 현대 동물원의 존재 의의와 일맥상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세계인들이 한결같이 지식원을 동물원의 효시(梟示)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식원에 이어 기원전 7세기경 고대 희랍에 동물원이 생겼는데 여기서도 역시 동물을 단순한 위학의 대상으로서만 사육한 것이 아니고 동물원으로서의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기원전 6세기에는 원숭이, 매추라기, 꿩, 두루미,

비둘기, 닭, 공작 등 가금류(家禽類)가 대량 도입되었으며 기원전 4세기에는 각 도시에서 볼 수 있게 되어 학습자료로 많이 이용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가 훗날 History of Animals를 펴내게 된 것도 그가 동물원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용한 관찰자였기 때문이며 당시의 동물원의 역할이 학문의 발달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잘 알고도 남으리라.

그중 그가 분류한 5백 여종의 동물분류체계를 보면 이미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과 척추동물을 구분하였고 척추동물에서는 젓빨이강, 새강 등을 구별해 놓은 것이 오늘날의 동물분류법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그후 동물분류학자인 존 레이(Ray, John 1628-1703)와 칼 폰 린네(Linne, Carl Von 1708-1778)도 이 분류체계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유혈동물 (有血動物) =척추동물	태생4족류 (胎生四足類)		포유류(哺乳類)
	난생4족류 (卵生四足類)	완전한 알을 낳는것	조류, 파충류, 양서류,
불완전한 알을 낳는것		어류	
무혈동물 (無血動物)	유연류(柔軟類) =두족류(頭足類)	완전한 알을 낳는것	문어, 오징어
			새우, 게
	연갑류(軟甲類) =갑각류(甲殼類)		
	곤충류 =다족류(多足類)	특수한 형의 알을 낳는것	거미류
	조개류 =극피동물 (棘皮動物)	조개껍질을 갖는것	조개
조개껍질을 가지지 않는것		해삼, 해파리, 해면, 산호류	

희랍의 동물원이 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발달한 것에 비하여 로마에서는 동물사육의 목적이 2개의 방향으로 나뉘어져 발달 하였는데 하나의 계통은 로마 썬커스(Roman Circus)로 맹수나 대동물을 좁은 장안에서 싸우게 하거나 코끼리와 코끼리, 사자와 곰, 사람과 황소 등을 서로 싸우게 하여 그 잔혹한 결투 모습을 보고 즐겼으며, 또 하나의 계통은 동물을 관찰 연구함으로써 동물학의 진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세로 동물원이 개인에 의해서 설립되어 운영된 것이다.

그러나 선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부터 유럽에서는 동물원의 쇠퇴에 접어들었고 왕실, 교회, 시(市)등에 의해서만 그 면목을 유지해 왔으며 그후 14-16세기에 비로소 동물원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향해나 탐험이 성행하는 가운데 동물학이나 식물학의 진보가 있었다.

이들이 들여온 동물을 모아 각처에 갑자기 동물원이 설립 붐이 일어났고 새로운과학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14-16세기에 르네상스에 힘입어 동물학이 진보하였지만 현존하는 동물원과의 연계는 거의 없었고 일반 공개도 아니 하였으며 프랑스의 루이 14세(1643-1715)도 베르사이유 궁전에 동물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후 운영의 부실로 지금은 그 자취가 없어졌으며, 그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쇤브룬동물원(Tier Garten Sohon brun)만은

예외적이다.

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근대 동물원도 처음에는 사사로운 것으로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동물원 중앙에 위치한 아름다운 막사(幕舍)모양의 별관에는 황후가 자리하여 식사를 하면서 코끼리, 낙타, 얼룩말 등을 보고 즐겼던 것이다.

그 뒤 13년 후인 1765년 조셉2세(Joseph II)가 일반 시민들의 요망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과학진흥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완전히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 역사적인 동물원은 현재도 옛모습을 그대로 지닌채 기념물처럼 보존돼 있으며 동물사와 각종시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조화는 당시 인간들의 자연에 관한 동경심을 짐작케 한다.

현존하는 동물원 중 2번째로 오래된 것은 1774년 스페인의 마드리드 동물공원(Parque Zoologico Madrid)으로 녹색으로 가득찬 로얄가든 안에 위치하고 있다.

3번째로는 프랑스 파리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부속식물원내에 1793년 설립한 동물사육장으로서 동물과 식물과의 조화과 추구되고 있다.

위 3개의 동물원만이 18세기에 창설된 동물원으로 현재까지 존속 운영되고 있으며 이무렵까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 3개국에서는 동물원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중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